

종합·해설

# ‘돈봉투 수사’ 확대... 한나라 대혼란

### 연루 의혹 인사들 잇단 소환에 위기감 확산

### 총선 예비후보자들 “명함도 안받는다” 울상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전 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여권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위기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결을 벌였던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의 돈 선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권이 자중지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다른 사안으로 확대될 경우 돈봉투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언론이 12일 돈봉투를 돌려받은 뒤 고승덕 의원에겐 전화통화 건 인사가 박희태 국회의장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청와대 김희재 정무수석이라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박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씨와 전대 당시 박희태 캠프에서 활동했던 안병용 당협위원장(은평갑)이 전날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온종일 술렁였다.

고승덕 의원이 돈봉투를 되돌려준 당사자로 지목한 고씨는 돈봉투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고, 안 위원장은 한때 친이계 좌장으로 불렸던 이계오 의원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돼 이를 두 사람의 증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단 검찰 조사에서 고씨는 돈봉투 전달 의혹을 부인했고, 안 위원장은 자신이 구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주면서 “서울지역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돌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선 향후 검찰수사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회의에서 “쇄신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쇠신을 가로막고 비대위를 흔드는 언행은 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행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현장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은 “한나라당이라면 명함도 받지 않는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한나라당은 인

적쇄신과 당 정강 보수 표현 삭제 등을 놓고 심각한 계파갈등, 이념갈등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서 재창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당이 대혼란 그 자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민주 당권주자들 ‘검찰개혁’ 정책대결

### “대검중수부 폐지” “국가비리수사처 신설”

민주통합당 당권주자들이 종반 레이스에 돌입, 수도권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검찰개혁을 놓고 정책대결을 벌였다. 당권주자들은 전날 서울에 이어 이날 경기(아주대 체육관)와 13일 인천(인천고 체육관)에서 잇따라 합동연설회를 갖고 막판 세풀이를 이어갔다.

주자들은 특히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이는 유력주자인 한명숙 후보의 13일 선고 공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명숙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이 남용된 것으로 평가받는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지역검찰 제 도입 ▲법무부 민원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BBK 저격수’로,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박영선 후보는 국가비리수사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가비리수사처는 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친 비리를 총체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국가비리수사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또 김부겸 후보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검사장을 시민들이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라는 색다른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이화영·박용진 후보는 검찰총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박지원이 강태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문성근·이인영 후보 역시 정치검찰 척결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낙동강벨트’ 세몰이 나선 문재인

### 총선 선거사무소 열고 부산공략 시도

야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4월 총선 출마지인 부산 사상구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문 상임고문은 11일 트위터에 “문재인후보 선거사무소 ‘문이열린 캠프’를 정식으로 오픈한다”면서 “별도의 개소식은 없고, 화환과 화분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부산 사하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한 직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선거사무소를 마련해 지역을 훑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축산물산장 등 지역을 돌고 저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경남 김해에 출마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사사업본부장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서부산과 동부경남을 연결하는 ‘PK(부산·경남) 낙동강벨트’의 세몰이에 나섰다.

문 이사장은 북콘서트에서 이명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선거 의미 등을 놓고 토론했다. 또 이날 북콘서트에는 권양숙 여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콘서트에서는 또 김 본부장,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김정호 전 국정기획비서관 등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관들이 청와대 근무 시절의 추억을 풀어놓는다.

이와 함께 문 상임고문은 최근에는 프로그램인 ‘SBS의 힐링캠프’에 출연해 특전사로 복무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벽돌격과 시범에 나섰다가 부상을 당해 김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정가 라운지

### 최경주, 산악연맹 신년하례식

민주통합당 최경주 부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율리데이인 호텔 광주에서 열린 ‘2012 광주시산악연맹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다.

광주지역 1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최 예비후보와 30여 년 간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산악동지이자, 히말라야 16좌를 세계 최초로 등정한 산악인 엄홍길씨가 참석, 특강을 가졌다.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최 예비후보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산악연맹’을 주제로 ‘올바른 등산문화의 보급, 대자연 시민의식 함양, 산악사고의 방지, 우수선수의 육성’을 목표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지난 11일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장 의원은 광주시와 남구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현황을 비롯, 문화기초(CT)연구원 광주 설치방안 통과 등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 서대석, 서구 을 출마 선언

서대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서 전 비서관은 “국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정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하에서 유린당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2012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광주시민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야 4당 단일후보로 변화를 바라는 서구민들의 열망과 저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확인했다”며 “어떻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지만 다시 신발끈을 교쳐 매겠다”고 말했다.



후보는 12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전당대회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임을 밝힌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출발은 정당개혁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번 안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특히 “정당개혁은 당원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기본부터 갖춰야 한다”며 “이번 돈봉투 사건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계기이며 근본적인 정치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호산, 출판기념회 성황

4·11 무안군수 보궐선거 출마예정자인 토글토글 무안고구마사업단 김호산 CEO의 인생노래 ‘농민의 땅에 믿음을 심다’ 출판기념회가 11일 오후 무안 송담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1500여 명의 군민들과 무안 현경 출신 국회의원 유원일 의원을 비롯한 농업관련 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축전을 보내오는 등 성황을 이뤘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장병완, 의정보고회 마무리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12일 “진정한 지역발전은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비롯되는 만큼 앞으로 현장 소통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여 일 간에 걸쳐 각 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사랑방 좌담회식



### “돈봉투 사건 계기 정치혁신을”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 북을 국회의원 예비

# “어깨 떠만 두른다고 학교폭력 근절되느냐?”

### 교과위, 시·도교육청 전시성 대책 질타

12일 서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 현안보고회’에서는 다양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쏟아졌지만,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일부 대책을 제외하곤 대다수가 전시성 대책”이라며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장관과 교과위 소속 김영진 의원 등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감 중 광복회 서울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해 지역별 학교폭력

현황과 대책을 보고했다.

2009년(178건) 대비 2010년(236건)에 학교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늘었다는 사실은 학교폭력 근절 결의대회를 하나의 예방 대책으로 내놨다.

김영진 의원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대부분 맞벌이 가정·여교사 과잉 등 모두 ‘남 탓’이고 대책은 학부모 소환 등 ‘처벌’ 일색”이라며 “발본색개 시·도교육감 중 광복회 서울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해 지역별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근절되느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의 ‘생활교육분야 수석 교사제 신설’, 경기교육청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전남교육청의 ‘감성교육을 위한 예체능 교과 필수 확대’ 등은 우수 대책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예방활동,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수 대책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b>화석시대고기뷔페봉선점</b> 봉선동 모아1차@옆골목 우삼점 한정식 뷔페, 가브리얼 피자, 주류, 떡갈비, 오리, 꽃등심, 목살, 피자, 김밥, 단팥, 예약손님환영 <b>☎(062)673-3337</b>	<b>달나라공인중개사</b> 화정동 구세우서점 모아@상가1층 아파트, 상가, 주택, 빌딩, 원룸, 토지 매매 및 알선 전문 각종 부동산 투자 상담 및 세무법률 상담 전문 <b>대표 김태욱</b> <b>☎(062)385-0480</b>	<b>(주)베이비유광주점</b> 화정동 사거리와 서부소방서사이 16년 전통의 국내최고 아기사진전문 브랜드 국내 유일 아날로그 필름 촬영 주니어·가족사진 스튜디오 전문점 <b>☎(062)453-4745</b>	<b>왕갈비실내포차</b> 화정동 서부소방서 뒷편 골목과 현대@상가 앞 골목 생선, 갈비탕, 생선, 탕, 닭백숙, 오리, 로스, 닭도리탕 웰빙, 예호박, 짜개, 비빔냉면, 오리전골, 단팥, 예약손님환영 <b>☎(062)374-5131</b>	<b>대구형제막창</b> 백운동 1-5번지(휴먼시아3차 대성시장이) 소막창, 돼지막창, 돼지갈비, 오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062)651-9293</b>		
<b>손큰회포차</b> 서구 송촌동 1199-7번지 송촌kt 옆 산낙지회, 메기탕, 병어조림 <점심메뉴-동태탕> 회 포장 됩니다. <b>대표 문정매</b> <b>☎(010)2809-5673</b>	<b>덕진공인중개사</b> 두암동 303-7번지 두암대우삼거리 근처 상가, 주택, 아파트, 토지 매매 전문 <b>대표 채난실</b> <b>☎(062)265-8449</b>	<b>하나회관</b> 두암동 840-15번지 말바우시점 건너 생고기 전문점 <b>☎(062)261-1192</b>	<b>한방대니무속성유황오리</b> 우산동 554-19번지 서방시점 건너 새마을골목 조기탕, 청국장, 추어탕 전문 6,000원 <b>대표 서유경</b> <b>☎(062)522-8883</b>	<b>(유)신세계렌트카</b> 중흥동 한국시멘트빌딩 옆 24시간 전화예약 상담 <b>☎(062)525-0091</b>	<b>별돈</b> 백운동 현대@건너 목우@상가 국내산 돼지고기 전문점 <b>대표 김중필</b> <b>☎(062)367-0281</b>	<b>천지당구장</b> 양림동 기동빌딩입구 2층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b>대표 임성채</b> <b>☎(010)4144-6088</b>
<b>유니베라남양알로에복구대리점</b> 북구 우산동 말바우사거리 동진빌딩 301호 건강식품, 화장품 <b>☎(062)268-7755</b>	<b>SK국제, 국내결혼정보회사</b> 우산동 554-37번지 서방시점 건너 국내·외 결혼 전문 <b>대표 유병숙</b> <b>☎(062)941-2204</b>	<b>행정사김중기사무소</b> 지산동 법원광장 광주은행365코너 옆 진정, 탄원, 고소, 고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b>☎(062)234-2258</b>	<b>말바우한의원</b> 두암동 841-5 말바우소방소 앞 요통, 어깨통증, 손목 등 각종 통증 치료 전문 <b>원장 이용식</b> <b>☎(062)262-5275</b>	<b>스마트학원</b> 양산동 첨단자이@입구 농협3층 초, 중, 고 영어, 수학, 대과반 수시모집 1:1 맞춤 학습 시스템, 원장님 직접 강의 지도 <b>☎(062)412-0909</b>	<b>돈까스테이크, 스키아게티 전문점</b> 본촌동 현진에버빌입구 영암미트도넛2층 돈까스테이크, 스키아게티, 돈까스오리이스 보증금 5,000만원, 월 20만원 임대, 시비 있음, 한해성업 중 <b>☎(062)430-3345</b>	<b>영암마트직영농두점</b> 양산동 첨단자이@입구 농협 옆 청과, 야채, 정육, 수산물, 공산품, 생선, 신지식농산물 국내전화주문 시 신속배달 개업기념 국민차 경품 실시 중 <b>☎(062)571-4851</b>
<b>정우합기도</b> 신원동 첨단2지구 자이1차상가 2층 유치부, 초, 중, 고, 일반부 수시모집 자녀에게 하루한시간씩 건강을 선물하십시오. 사랑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경철공무원 기증품 부여 <b>☎(062)571-9696</b>	<b>원명원</b> 금남로2가 구)동구청 1층 중화요리 전문 광주에서 처음 출시한 요리 <b>☎(062)232-1422</b>	<b>포인트추나오피</b> 봉선동 1036-6번지 모아2차@사거리 운동차량, 목, 허리, 어깨, 다리 관리 (월~일, 주·야간) <b>☎(062)651-9030</b>	<b>커피홀릭</b> 동구 충정로3가 11(이표유정동 건너편2층) 직접 볶아 신선한 커피 <b>대표 김현오</b> <b>☎(062)229-0230</b>	<b>종로검정고시학원</b> 대의동 71-4 전일빌딩 뒤 문화전당 바로 옆 성년헌글반, 오전·오후·아간반 검정고시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b>원장 이재은</b> <b>☎(062)226-2227</b>	<b>무진보</b> 동구 금남로2가 7-3 카톨릭센터 뒷편 오리요리명가 단체손님예약 환영 <b>대표 이명욱</b> <b>☎(062)523-5292</b>	<b>신신예술의집</b> 동구 궁동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b>대표 서대석</b> <b>☎(062)222-1936</b>